

[기획] >> 4면
국제교류 프로그램

[심층] >> 7면
충간소음

[사회] >> 8면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학문화] >> 12면
우리학교 축제



화재의사각지대에 방치된 원룸촌 대학생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은 구조적 특징과 원룸촌 주위 환경 탓에 화재에 취약하다. 우리학교를 포함한 5개의 동북권 대학교 △광운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는 대학가 원룸촌의 화재 대비 시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연합 취재를 진행했다.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 △원룸의 화재 위험성 △화재 예방을 위해 개선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3면에서 계속

글 · 사진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우리학교, 제11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개최해

지난달 2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Minerva Complex) 국제회의실에서 △우리학교 포르투갈어과 △외교부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Korea Brazil Society) 이하 KOBRAS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1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본선이 열렸다. 이번 행사엔 △권기수 한국-포르투갈-브라질 학회장 △김태성 우리학교 부총장 △윤상욱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 △편무원 KOBRAS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해 11회를 맞이한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협력관계가 증대됨에 따라 △포르투갈어 전공자의 학습 의욕 고취 △포르투갈어 전문인력 양성 △포르투갈어권 국가와의 교류에 필요한 통·번역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포르투갈어 능력 △협동력 △IT 접근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브라질 독립 200주년 △우리나라 홍보 및 소개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경제·문화·사회·언어를 주제로 한 동영상 콘텐츠(이하 UCC)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3일 KOBRAS 사무국에서 예선을 실시했으며 △우리학교 △단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부산외대) △서울대학교 소속 9팀 총 1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평가는 본선 당일 제작한 UCC를 포르투갈어로 소개한 후 심

사위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본선 진행 결과 서울대학교 'ANT' 팀이 외교부장관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KOBRAS 회장상인 금성엔 단국대학교 백이사 씨 △상은 서울대학교 'SIM' 팀과 부산외대 이가연 씨 △동상엔 단국대학교 'DUAS' 팀과 부산외대 유은서 씨가 수상했다. 대회에서 제시된 주제 중 우리나라 홍보를 선택해 세종대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경연을 진행한 우리학교 재학생 현성민(서양어-포르투갈어 2)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포르투갈어 실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용재 KOBRAS 사무총장은 "이번 해엔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UCC 공모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어권 국가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대회 개최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포르투갈어 인력 기반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상한 작품은 추후 KOBRAS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우리학교 미주 지역 동문, 우리학교에 300만 달러 기탁 약정 체결해

지난달 2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강일갑(서양어-스페인어 7) 주식회사 글로리스(Gloris, INC) 이하 글로리스 회장(이하 강 회장)의 학교발전기금 10만 달러 기탁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엔 기부자인 강 회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이외에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 하 박 총장 △장태엽 우리학교 재무-대외부총장 △가정준 우리학교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강 회장의 이번 기부는 지난 7월 뉴욕(New York)에서 열린 우리학교 미주 지역 총동문화에서 박 총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강 회장은 박 총장과 만남을 통해 우리학교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과거 우리학교에 재학하며 익힌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 삼아 활동하는 기업가로써의 역할을 기를 수 있었다"며 "후배들이 우리학교의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꿈을 펼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회

장이 기부한 1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1억 4300만 원으로 우리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총장은 미주 지역 우리학교 총동문화에서 강 회장 외에 △김종호(서양어-독일어 8) HK프로듀스 그룹 대표 △이덕선(서양어-독일어 5) 우리학교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 △이연향(통번역대학원 한영과 8) 미 국무부 통역국장 △홍성혜(서양어-스페인어 6) 오션사이드 RV 파크 회장 등을 만나 총 28만 1천 달러(한화 약 42억 원) 규모의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발전 기금 기탁 소식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생 이현서(일본-일어문 2) 씨는 "기부금이 우리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방식으로 쓰이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한국외대 서울 학생상담센터에서
**또래상담이 필요한
외대인을 찾습니다!**



또래상담자는 총 10시간의 상담교육을 이수한 한국외대 학생들로,
본 프로그램은 상담기술과 상담자 개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학우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대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또래상담이 필요한 한국외대 학우라면 누구나

진행방식
신청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담가와 1:1 매칭, 개별 연락 후 상담 진행

신청기간
2022학년도 2학기 중 상시모집

신청방법
상단 QR코드 인식/하기 링크 접속 후 구글폼 작성
<https://forms.gle/6KS9Eu7tafMG8GSJ8>

문의
02-2173-2562, sccs@hufs.ac.kr
(국제학사 345호 학생상담센터)

우리학교,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프로젝트 시상식'에서 2관왕 달성해

지난달 23일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발표 및 시상식'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대상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취업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행사에선 데이터 분석과 처리 등 지난 6월부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우리학교를 포함한 총 12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데이터 이론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수행한 129개의 프로젝트 중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20개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 및 발표가 진행됐다.

대상은 우리학교 재학생 박현진(동유럽·체코어 20) 씨(이하 박 씨)를 포함한 △김윤정·박선홍·박영웅이 정민·정예진·조석류 씨로 구성된 '빈센조' 팀이 수상

했다. 빈센조 팀은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어 발음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BETTer'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빈센조 팀의 팀장 박 씨는 "논문을 통해 학습한 학술적인 내용을 프로젝트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던 점이 흥미를 느껴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며 "주제 선정부터 알고리즘 선택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직접 시도하며 결과를 확인하는 게 더 의미 있던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우리학교 재학생 △이동인(공과·컴전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시상식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리학교 학생들(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18) 씨(이하 이 씨)를 비롯해 △김재원·스승기·양건안·오지환·이진환·장승호·정훈서 씨로 구성된 '돌을별' 팀이 차지했다. 돌을별 팀은 컴퓨터가 주어진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이미지 캡셔닝(Image Captioning)'을 이용해 농작물 질병 진단이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결과물로 농작물의 질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Dr.쑥쑥'을 선보였다. 이 앱은 농작물의 질병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가능하고 농작물을 촬영함으로써 해당 농작물의 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돌을별 팀의

팀장인 이 씨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총괄 담당할 우리학교 AI교육원 교수는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프로젝트 모두 언어를 기반으로 했다"며 "대상은 자연어와 음성, 최우수상은 자연어와 이미지의 조합으로 우리학교만의 강점을 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학교만의 언어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데이터 청년 캠퍼스 사업 운영대학에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해당 사업에서 자연어처리 기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융합 과정을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우리학교 EU연구소,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진행해

지난달 2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살캠)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이하 제주중앙여고)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이하 고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리학교 EU연구소(이하 EU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고교 프로그램은 대학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학교 및 EU연구소 소개·유연연합(EU) 소개·유연연합에 대한 관심도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고교 프로그램은 1부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환영사·유연연합 개관 특강·재학생 특강·유연연합 신청기관 대표 특강의 순서로 구성됐다. 1부에선 김봉철 EU연구소 소장(이하 김 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리학교와 EU연구소를 소개했다. 이어 이하얀 EU연

구소 초빙교수가 유럽연합 및 유럽과 국제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유럽연합 개관 특강'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 특강에선 전지예(동유럽·그리스 19) 유라세스 우리나라 지부(EURAXESS Korea) 인턴(이하 전 인턴)과 신의찬 EU연구소 연구원이 우리학교의 학과를 소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토마스 비르즈보우스키(Tomasz Wierzbowski) 유라세스 우리나라 지부 대표가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관계와 유럽연합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 유학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김 소장은 유럽연합 특강에 대해 "지역학을 강점으로 하는 우리학교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유럽과 유럽연합이란 분야를 고등학생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자 했다"며 "특강을 통해 우리학교를 찾는 고

등학생들이 유럽과 유럽연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부에선 △기념사건 촬영·설캠 탐방·유연연합 관련 퀴즈대회인 '골든벨을 울려라'가 열렸다. 이번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엔 질의응답 및 유럽연합 관련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우리학교 홍보대사 '새로미'가 우리학교를 소개하는 설캠 탐방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EU연구소는 입학지원처에서 제공받은 △우리학교 기념품·△고교 프로그램 참가인증서·△EU연구소 기념품을 제주중앙여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며 고교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학내 탐방을 진행한 우리학교 홍보대사 새로미로 활동 중인 임창진(LT 22) 씨는 "우리학교 홍보대사로서 처음 진행한 학내 탐방이었는데 제주중앙여고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보

여줘서 기뻐했다"며 "이번 고교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이 우리학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학내 탐방에 참여한 제주중앙여고 1학년 강수연 씨는 "학내 탐방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직접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며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진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EU연구소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우리학교에 고등학생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학교를 방문한 고등학교는 △서울 상일여자고등학교·△제주중앙여고·△서울 덕성여자고등학교 등 총 3곳이다.

나리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우리학교 정보지원처,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인터넷 환경 개선 사업 완료해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정보통신팀과 글캠 기숙사 '흡스돔(HUFS Dam)' 학사운영팀에서 약 4년간 추진한 기숙사 인터넷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다.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매 학기 방향 시기에 흡스돔의 A동부터 외국인 교원 기숙사인 F동까지 총 6개동에 네트워크 통합 작업을 진행했고 유·무선 공유기를 교체했다. 흡스돔의 기존 인터넷망은 외부 사업자가 관리해 매해 7,000만 원의 관리비가 지출됐다. 또한 호실마다 외부 사업자 소유의 기자재를 사용해 네트워크 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학교 자체 관리 인터넷망을 설치해 외부 사업자를 대체함으로써 네트워크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윤석 글캠 정보통신팀 정보지원처장(이하 이 처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해 지출하던 인터넷 사용료를 총 1억 1,600만 원 가량 절감하고 약 30% 향상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밝혔다.

흡스돔 학사운영팀은 우리학교 기숙사 재정의 효

율적인 사용과 흡스돔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내 자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글캠 기숙사 네트워크 통합 작업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준일 글캠 학사운영팀 학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절감된 비용은 기숙사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며 "네트워크 통합 환경 개선을 위한 글캠 학사운영팀과 정보통신팀의 교내 부처 간 협력이 우리학교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리(공과·컴전 20) 씨는 "이번 네트워크 통합 사업으로 기숙사 내 인터넷 속도가 향상됐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학내 자체 관리가 이뤄져 안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처장은 이번 학기에 글캠 백년관의 무선랜 스위치를 일부 교체하는 등 지속해서 인터넷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나리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우리학교 미식축구 동아리 블랙나이트, '2022 SAFA 추계 미식축구 리그' 준우승해

지난 4일 강원도 홍천 서면 구장에서 열린 '2022 SAFA 추계 미식축구 리그(이하 추계 서울 리그)' 4강전에서 우리학교 미식축구 동아리 '블랙나이트(Black Knights)'가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를 상대로 승리하며 11년 만에 추계 서울리그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와 맞붙었으나 13:0으로 패배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엔 우리학교 졸업생인 홍평화(아시아·아랍어 05) 블랙나이트 감독(이하 홍 감독)을 중심으로 서울캠퍼스 10명과 글로벌캠퍼스 15명이 한 팀을 이뤄 대회에 출전했다. 이번 대회는 한 퀀터당 12분씩 전반전인 1·2쿼터와 후반전 3·4쿼터로 이뤄졌다. 4강전인 서울대와의 전반전에서 양 팀이 동점을 기록했으나 후반전에 7:6을 기록하며 승리했다. 이후 지난 9일 성균관대 미식축구 동아리인 '로얄스(ROYALS)'



▲우리학교 미식축구 동아리 '블랙나이트(Black Knights)' 선수들

와 결승전이 진행됐다. 결승전에선 13:0으로 패배하며 준우승으로 추계 서울리그를 마무리했다. 이번 추계 서울리그에 대해 홍 감독은 "비록 이렇게 준우승을 기록했으나 최선을 다해 경기를 준비했기에 뿌듯하다"며 "선수들이 고생한 만큼 여러 번의 승리를 거머쥐어 만족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블랙나이트는 이번 추계 서울리그에서 준우승을 기록해 다음 달에 진행될 '전국대학미식축구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한편 지난 1월 블랙나이트는 경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전 'Challenge Bowl'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블랙나이트는 창단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후 수상한 우승컵을 총장실에 기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나리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09.30(금) ~ 10.07(금)	2022.11.14(월) ~ 11.18(금)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2022.12.03(토) 10:00
입격자 발표	2022.11.04(금) 16:00 예정	2022.12.16(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예정	2022.12.19(월) ~ 12.23(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교육 • 영어교육 • 컴퓨터교육 • 스페인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유아교육 • 수학교육 •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교육 • 컴퓨터교육 • 중국어교육 • 유아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학문의: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소: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지하철 1호선 외대입구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gse.hufs.ac.kr

○ 이메일: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화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원룸촌 대학생

가을이 다가오고 공기가 건조해져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은 구조적 특징과 원룸촌 주위 환경 탓에 화재에 취약하다. 이러한 원룸촌의 취약한 환경은 우리학교 이외의 대학교에도 존재한다. 이에 우리학교를 포함해 서울 동북권에 위치한 5개 대학교인 △광운대학교(이하 광

운대)△덕성여자대학교(이하 덕성여대)△삼육대학교(이하 삼육대)△서울여자대학교(이하 서울여대) 학보사는 대학가 원룸촌의 화재 대비 시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연합 취재를 진행했다.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원룸의 화재 위험성△화재 예방을 위해 개선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

이번 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만 반지하 거주 시민 4명이 침수 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반지하 외에도 고시원과 옥탑방 등에 거주 중인 주거 취약 계층은 이번 재난 상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계속된 피해로 주거 취약 계층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지만 침수 피해만 조명받을 뿐 다른 사고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거 취약 계층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 요인은 화재가 꼽힌다. 이번 해 6월 소방청이 공개한 '2021년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3만 6,267건의 화재로 인해 2,130명의 사상자와 약 1조 99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화재 중 약 1만 건이 주거 시설에서 일어나며 전체 화재 건수 중에서 28%를 차지했다.

주거 취약 계층은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험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30.9㎡로 전국 평균 1인당 주거 면적인 33.9㎡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아닌 대학생으로 범위를 좁히면 1인당 평균 면적은 더 줄어든다.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7.5%로 3.4%인 일반 가구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면적이 좁은 원룸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원룸의 구조 문제가 꼽힌다. 대부분의 원룸은 협소한 공간 탓에 주방이 입구에 배치돼 있다. 발화점이 출입구에 있다 보니 화재 발생 시 불을 뚫고 대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격이 저렴해 많은 대학생이 원룸에 거주 중이지만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화재 대비에 취약한 원룸촌은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넓게 형성돼 있으며 많은 대학생이 원룸에 거주 중이다. 이에 우리학교는 대학가 원룸촌의 화재 대비 시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동북권 대학교 △광운대△덕성여대△삼육대△서울여대와 함께 연합 취재를 진행했다.

◆ 원룸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화재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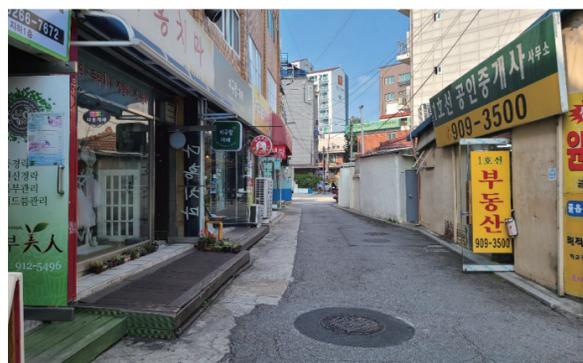
화재가 발생하면 최소 3대 이상의 소방차가 동시에 출동한다. 그래서 충분한 도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학가 원룸촌은 폭이 좁은 도로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차의 전폭은 2.5m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원룸촌 도로로는 소방차의 원활한 도로 진입과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의 전폭을 고려한 최소한의 도로 폭인 2.5m가 보장돼야 한다.

5개의 동북권 대학 중 학교 인근에 원룸촌이 비교적 크게 형성돼있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광운대△덕성여대△서울여대 학보사 기자들은 원룸촌 도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취재를 나섰다. 서울여대의 원룸촌은 정문 인근과 남문 사이 주택가에 형성돼 있다. 서울여대 인근 원룸촌 도로 폭은 평균적으로 6m에서 8m 정도로 다른 지역의 원룸촌과 비교했을 때 넓은 편이다. 그에 반해 우리학교 설캠 정문과 후문 근처 원룸촌을 돌아다니다 도로 폭을 측정해본 결과 정문 쪽 2개의 골목이 2.5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 골목은 차가 여러 대 주차돼 있어 매우 혼잡했으며 차의 전폭을 제외한 도로 폭은 1.4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도로 자체는 2.5m 이상이지만 주차된 다수의 차량으로 인해 이동폭이 2.5m 이하인 골목 세 곳이 후문에서도 발견됐다. 2.7m였던 골목은 빼곡히 들어선 차량으로 인해 60cm 정도의 공간만 남겨 사람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광운대 인근 원룸촌 골목 또한 총 네 곳의 폭이 2.5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폭이 1.9m인 골목부터 실제 도로는 3.8m이지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2.45m의 이동 거리만 확보되는 도로까지 찾을 수 있었다. 덕성여대 원룸촌은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좁은 골목 길에 주택이 밀집돼 있다. 덕성여대 인근 원룸촌 골목은 2.67m에서 2.91m 정도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폭이긴 하나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화 활동을 진행하기엔 좁은 폭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원룸 건물엔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불법 주차된 차량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좁은 폭의 도로는 소방차의 골목 진입을 더디게 만든다. 동대문구 소방서 출동 외근 부서는 "현장에 최대한 일찍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는 게 중요한데 오래된 원룸촌은 골목 진입부터 쉽지 않고 길 자체도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광열 우송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이하

고 교수는 "발화 후 실내 전체가 화염으로 휩싸이는 시간은 5분 이내여서 빠른 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빠른 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학교 설캠 원룸촌 도로



▲광운대 원룸촌 도로



▲덕성여대 원룸촌 도로

원룸 내부에 △비상경보설비△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소방 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꼽힌다.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수용인원△용도에 따라 소방 시설의 설치 의무가 다르다. 비상경보설비의 경우 연면적*400㎡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만 의무 설치 대상이 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설치될 수 있다. 소화기가 갖춰지지 않거나 이미 설치된 소방 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엔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외대학보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의 자취 공간 소방 시설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자취하고 있는 곳에 소화기가 세대별로 1개씩 구비돼있나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자취하고 있는 곳에 소화기가 층별로 1개씩 구비돼있나란 질문엔 4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구비돼있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25%로 확인됐다. '소화기 외에 설치돼 있는 화재 대비 시설이 있나'란 질문엔 33%가 화재경보기가 설치됐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67%의 학생은 모른다고 답했다. 덕성여대 학보사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룸 주택 내 소화기가 비치돼있는 위치를 알고 있나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4%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많은 학생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소화기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원룸에 거주 중이며 소방설비의 존재나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 학생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를 대비할 환경과 시설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히지만 대부분의 주거

시설 화재는 개인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 41만 5,709건 중 발화요인으로 부주의가 20만 6,889건(49.8%)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번 해 3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가정에서 어댑터를 규격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화재재현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소비전력이 높은 기기를 문어발식 멀티탭에 꽂아 사용하면 온도가 140도까지 급격하게 상승해 화재의 위험 또한 높아졌다. 우리학교 설캠 인근에서 자취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멀티탭을 이중으로 결합해 사용한 적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여찬우(서양·포르투갈어 21) 씨는 "원룸엔 콘센트의 수가 부족해 멀티탭을 이중 연결해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도 사용하고 있는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룸 내에서의 흡연 또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 1만 6,875건 중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는 5,235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설문조사 결과 집 안에서 흡연한 경험이 있는 우리학교 학생도 25%로 다수 존재했다.

◆ 화재 예방을 위해 개선할 사항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법은 필요성에 맞게 여러 번 개정을 했기에 큰 부족함이 없던 게 전문가의 여론이다. 그러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절차가 부족하단 점과 개정된 소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원룸이 문제가 된다. 소방법엔 '6개월에 1회 이상 소방안전 점검이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반해 현재 자취를 하는 우리학교 학생 중 92%가 자취를 시작한 이후 소방안전 점검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덕성여대 또한 학교 인근에서 자취 중이라고 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모두 소방안전 점검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교수는 "소화기의 압력계 지침이 적색이거나 소방 시설이 파손됐을 때 건축주에게 요청해 항상 정상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안전 점검과 함께 개개인의 관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원룸과 같은 좁은 주거 공간에도 스프링클러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단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 법적으로 6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원룸 주택은 대부분 4층 이하이기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에 대해 시공관 삼육대 건축학과 교수는 "안전을 위해 6층 이하의 건물에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룸촌의 협소한 골목길 개선을 위해선 건물 간 충분한 거리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건설에 제한을 두게 되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축업체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사 교수는 건물 간 거리를 늘리는 것보다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장려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장려책을 제공하면 건축업체의 손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화재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원룸촌 골목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 공간을 확대해야 한단 의견도 있다. 고 교수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불법 주차 차량을 줄이고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원룸 주택의 소방 시설 보완 및 좁은 골목길 개선과 함께 거주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고 교수는 "실내에선 흡연을 하는 등의 화기 취급을 최소화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레인지 주변에 잘 타는 가연물을 두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밸브를 폐쇄해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의 노력을 강조했다. 날씨가 건조해지고 기온이 내려가 화재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가 원룸촌이 안전한 주거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개개인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때다.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침체된 유학길, 더 나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위해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우리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불명확한 정보△프로그램 선발 인원△학생 선발 방식과 기준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학기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

발 안내가 이뤄진 후 선발 방식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현황△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에 대한 목소리△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현황

우리학교는 7+1 파견학생 제도와 교환학생 제도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해외 대학교를 경험하고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중 어학 수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7+1 파견학생 제도는 우수 선발과 학과 선발로 나뉘어 있다. 우수 선발은 1학년 평균 학점이 3.7 이상이어야 선발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매해 자격 충족자를 재반영한 인원 내에서 선발이 이뤄진다. 학과 선발은 학과에서 설정한 자체적인 기준에 맞춰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발한다. 주로 외국 대학교의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는 외국 대학교가 원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

학과 규모와 시기에 따라 상이하지만 코로나19 이전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당 최대 10명에 가까운 학생을 선발했던 전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국제교류팀이 각 학과를 통해 발표한 다음 해 1학기(이하 23-1학기)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선발 인원은 대부분 지난 학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양 캠퍼스 대부분의 학과는 23-1학기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2명의 학생을 파견한다. △경영학부△독일어과△스페인어과의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선발 인원은 각각 △5명△3명△3명으로 타 학과보다 많지만 모두 한 학년당 정원이 80명 이상인 학과임을 고려하면 학과 인원 대비 선발 정원 비율은 오히려 적은 양상을 보인다. 7+1 파견학생 프로그램과 달리 해외 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선발 인원이 학과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지난학과와 비교했을 때 선발 인원이 크게 감소하진 않았다. 실제로 이번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7명의 인원을 파견한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의 경우 23-1학기엔 지난해보다 3명이 더 많은 10명을 선발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선발 방식은 학과마다 크게 상이하다. 학과가 파견하는 7+1 파견학생 제도의 경우 학과가 마련한 자체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교환학생 파견을 위해선 해외 대학교가 요구하는 일정 어학 시험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프랑스어학부의 경우 7+1 파견학생 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모두 프랑스어 어학시험 델프(DELF)와 달프(DALF) 성적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인원을 결정한다. 따라서 해당 학부의 학생들이 7+1 파견학생과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선 각각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어학성적을 준비하면 된다. 러시아학과와 경우 △플렉스(FLEX) 성적△학과장 교수 평가△학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인원을 선발한다. 이 외에도 △원어민 교수와의 면접△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제출△학과 기여도 평가 등 많은 학과가 다양한 기준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국제교류팀에서 파견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각각의 해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기관토플토플(TOEFEL)△아이엘츠(IELTS) 등의 영어 성적 등을 충족해야 선발될 수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줄어든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의 선발 인원이 가

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외대학보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란 질문에 66.7%가 선발 과정에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에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과정의 미흡한 점을 복수 선택하는 질문엔 75%의 응답자가 ‘학과 정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인원’을 꼽았다. 이에 외대학보에선 2019년부터 이번 해까지 각 학과에 할당된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선발 인원의 수와 감축 원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제교류팀에 해당 정보를 문의했다. 그러나 국제교류팀은 “하내 구성원 간의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이를 공개할 수 없단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선발 인원 감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번 학기에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충족한 구세팀(용인 21) 씨는 “정원이 많은 학과의 경우 파견학생 인원수가 줄어들어 따라 가해진 타격이 더 컸다”며 “학생들은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줄어든 선발 인원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전했다.

선발 인원과 관련한 또 다른 목소리도 존재한다. 50%의 응답자는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이 우수 선발과 학과 선발로 나뉘어 진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기존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우수 선발과 학과 선발로 나뉘어 인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제교류팀은 줄어든 파견 인원으로 인해 이번 23-1학기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대상자를 통합 선발하도록 결정했다. 통합 선발은 단지 국제교류팀의 권고사항이었기에 학과의 재량에 따라 우수 선발과 학과 선발로 나뉘어 선발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과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학점 등의 요건을 충족해 얻은 우수 선발 자격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이 불공정하단 여론이 존재한다. 황찬일(국제지역·프랑스 18) 씨는 “우수 선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기존보다 프로그램에 선발되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불공정한 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처럼 우수 선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일부 학과는 이들의 선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어통번역학과는 통합 선발로 주어진 2명의 정원을 우수 선발과 학과 선발로 나뉘어 각각 1명씩 선발한다. 또한 우수 선발과 학과 선발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던 루마니아어과의 경우 우수 선발 자격을 갖춘 학생이 학과 선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학과가 선발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단 여론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과는 공인 어학성과 면접 등 학점 이외의 부가적인 요소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학점순으로 선발하는 학과가 있어 평가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기 수월한 절대평가 학기를 경험한 횡수가 프로그램 선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몽골어과와 EICC학과를 포함한 일부 학과는 학점만을 이용해 프로그램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을 준비 중인 A 씨는 “학생들이 절대평가를 경험한 학기가 모두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점순으로 인원을 선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학점 이외에도 다른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제교류팀은 학과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기에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일부 선발 기준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과 차원에서 마련한 선발 기준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불공정한 선발 기준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선발 기준을 마련한 해당 학과에 건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곧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공정한 학과 선발에 대한 감시와 검토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나아가야 할 방향

‘더 나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과정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5%가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인원 확대’를 꼽았다. 코로나19 등 선발 인원 감소의 원인이 되는 여러 상황이 존재했음에도 선발 인원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단 것이다. 서영준(서양어·노어 22) 씨는 “우리학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형태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기준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공지’가 63.2%의 응답을 얻었다. 특정 학과의 경우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어떤 요소를 평가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제로 포르투갈어과의 경우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이 선발을 위한 평가 요소를 알지 못한 채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정지은(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학과에서 어떤 기준을 통해 선발하는지 사전에 공지했으면 좋겠다”며 “명확한 기준이 공지된다면 프로그램을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 국제교류팀의 이후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김재경 우리학교 국제교류팀장은 “학생들이 기존에 존재했던 국제교류 프로그램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원활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다른 대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과정은 우리학교의 선발 과정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자체적인 환산 기준을 통해 계산한 학점과 그룹별 영어 면접을 실시해 평가한 점수를 더해 교환학생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 때 공정한 선발을 위해 △이름△학과△학번을 블라인드 처리해 선발을 진행한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과와 학번을 구분하지 않고 △면접△어학 능력△학점을 각각 △40점△30점△30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점수를 통해 선발한다. 이 때 학점의 반영 비율은 전 학년 평균 학점 60%와 직전학기 평균 학점 40%로 구성된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난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 그들이 소외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선

최근 국내 사립대학들은 재정난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우리학교 역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며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립대학의 전국적인 유학생 유치 증 가△우리학교 유학생 유치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전국적으로 활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재 국내 사립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며 전국의 많은 사립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증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사립대학의 재정난이 꼽힌다. 사립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금 감축△높은 등록금 의존율 등의 이유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은 공립대학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기 더욱 쉽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해외의 사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2021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미국 사립대학의 경우 평균 등록금 의존율이 30.4%에 불과한 것에 비해 지난 2020년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54.9%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재정난을 겪은 전국의 사립대학은 부족한 자원을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수는 12만 18명(78.8%)으로 2020년 대비 7,015명 증가했다.

유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립대학의 지원 기반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선 '묻지 마 유학생 유치'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묻지 마 유학생 유치'는 대학이 재정 마련을 위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지고 수업의 질이 하락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실제로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많은 수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을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 사항일 뿐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학생이 늘어 종종 우리나라 학생들의 불만을 일으키기도 한다. 유학생 측에서도 사립대학의 유학생 관리 부실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지방의 한 사립대학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며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해 부족한 사립대학의 유학생 지원 체계의 사례를 설명했다.

◆우리학교 유학생 유치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돼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유학 올 수 있는 환경이 다시 갖춰지며 우리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2020년 10.1%△지난해 10.4%△이번 해 1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약 70%에 달한다. 앞서 제시한 사립대학 평균 의존율보다 약 15%p 더 높은 것이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학교 종퇴자 수 증가의 문제로 입학금이 더욱 줄어들며 재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자퇴생의 수는 △2019년 465명△2020년 491명△2021년 65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선출된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은 유학생 유치 대폭 확대를 주요 공약으

로 제시했으며 총장 당선 이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원일 우리학교 국제입학관리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해외 유학 시장이 감소했기 때문에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접어들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낙승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과장은 "외국인 학생 유치는 우리학교 정원인 학생 3,300명 이외에 학생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어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현재 우리학교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에선 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1:1 한국어 글쓰기 첨삭 프로그램과 1:1 한국어 발음 교정 첨삭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대상 '대학수업



▲설립 오바마홀에 적힌 문구

을 위한 한국어 과정△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체험 행사△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특강 등을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유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교 측에서 유학생 유치에만 집중할 뿐 학생 유치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편의를 위한 세세한 지원 체계엔 관심을 비교적 적게 갖는 단 것이다. 우리학교 외국인 학부생 조완동(趙婉彤)(일본·일언문 22) 씨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한국어로 진행돼 스스로 정확히 이해했는지 불안해하는 학우가 많았으며 수강신청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지도 없었다"며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아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내 외국인 학부생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들 중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조별 과제를 함께 했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힘들어 했다"며 "결국 연력이 끊겨 팀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지닌 외국인만 지원 가능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체하는 면접 전형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한다. 하지만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제학부의 경우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기에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성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은 "사립대학별 자체 수익 사업을 늘려 고정 수입과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과 대학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는 지난해 9,180억 원으로 국내 사립대학 중 운영 수익 부분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부동산 임대△유가공업△의료사업 등으로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충했고 기부금 수입 또한 3,838억 원에 달했다. 현재 연세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46.8%로 우리학교를 비롯한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해외에선 지원금 운용의 자율성 보장과 기부금 유치 등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고 있다. 일본의 사립대학은 우리나라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사립대학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71%다. 그러나 일본 사립대학이 문부과학성으로부터 받는 고등교육 지원금은 운용의 자율성이 커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7년에 발표된 '일본 문부과학성 문부과학 관계 예산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일본 사립대학 지원 예산 3,268억 엔 중 '경상비 보조'의 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은 약 96.5%에 달한다.

미국에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비해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학교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교육지원위원회(CAE)에 따르면 2015년 기부금 상위 10개 사립대학의 수입 총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18%에 달했다. 반면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4년제 일반 사립대학의 수입구조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미국 정부에선 이와 같은 기부금 수익을 늘리기 위해 교육기관에 기부한 금액에 한해 50%의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단 시각도 존재한다.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복지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생 최준호(동유럽·우크라이나 22) 씨는 "한국어가 부족해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종종 보인다"며 "학교에서 이러한 실태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측은 "현존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의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 이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인유학생회 측과 외국인유학생회 측에선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입장을 밝혔다. 중국인유학생회 측은 "중국인유학생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계정의 운영을 개선해 중국인 학생의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외국인유학생회 측은 "이번 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영어로 학교 근처의 식당과 학생식당 음식의 정보를 알려주고 외국인 학생이 접하기 힘든 학교의 정보를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상시로 받을 수 있는 '컴플레인 박스(complaint box)'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며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기 시작한 만큼 △외국인 유학생△우리나라 재학생△학교 등 모두의 안정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아 떠난 스페인

지난 1학기 우리학교의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총 7개월 동안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알리칸테 대학교(University of Alicante)에서 공부했다. 7+1 파견학생의 경우 국제교류팀이 선정한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복잡하다. 나의 경우 혼자 입학하기서를 작성했고 비자는 유학원을 통해 준비했다.

스페인 거주 당시 오전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엔 교환학생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여러 나라 친구들을 초대해 각 국가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가끔 외식을 할 땐 우리나라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자주 먹었다. 주로 △남미스페인△아프리카 음식이었다. 종종 국제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인 ESN(Erasmus Student Network) 행사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 수 있었다. 외출하지 않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주로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의 시간이 매우 행복했지만 유학 생활 초반엔 도시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유럽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는데 알리칸테는 이런 내 소망을 이뤄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리칸테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바다 풍경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남다른 애정이 생겼고 지금은 알리칸테를 제2의 고향처럼 느끼고 그리워하게 됐다.



스페인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내가 변화한 걸 깨달았을 때다. 스페인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종교적 금기로 인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모로코 친구에게 돼지고기가 들어간 카레를 만들어 줄 뻔한 적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인도 친구들과 식사를 하게 됐을 땐 고가의 영양성분을 하나하나 확인해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우리나라 고기를 선물해줬다. 영양성분을 확인하는 내 모습에 감동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그때 인도 친구들이 만들어준 카레를 손으로 먹었는데 말로만 듣던 인도의 손으로 먹는 문화를 실제로 체험해보니 신기하고 재밌었다. 다른 나라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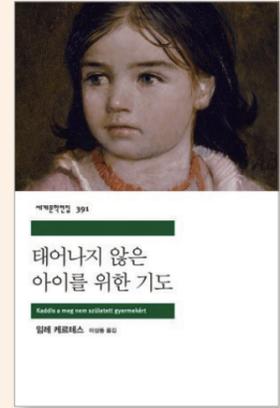
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게 된 내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스페인에 갈 학생들에게 무조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스페인에서 동양인이 흔치 않단 이유로 내게 먼저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보통 동양인에게 먼저 관심을 표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내 경우 ESN 친구들과 먼저 연락해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카페에 공부하러 가는 등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친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전공 언어의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한국어학과가 있는 대학교로 가는 걸 추천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나라의 교환학생들과 시간을 보낼 때 언어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아 전공 언어 실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마지막 졸업 학기를 앞둔 7학기에 스페인에 갔다 왔지만 다른 학우들에겐 더 일찍 유학 생활을 해보길 추천한다. 유학 생

활이 진로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한다. 나역시도 알리칸테에서의 유학 생활 동안 나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해외에서 사는 게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현재는 의외시에 취직하거나 영어권 국가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가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단 목표가 생겼다. 전 세계의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단 사실 또한 유학 생활을 통해 배우고 느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기에 서로에 대해 알아갈 점이 무궁무진했고 문화가 다르기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유학 생활은 여행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만큼 여과를 거치지 않은 스페인의 깊은 문화를 볼 수 있어 더 의미 있었다. 유학을 망설이는 학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부딪혀보길 바란다.

김서희(서양어 · 스페인어 18)

읽어서 세계속으로

헝가리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기도> -물려줄 수 없는 훼손된 삶-



헝가리의 작가 '임레 케르테스(Imre Kertész)'(이하 케르테스)는 1929년에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4년 나치 독일 정권의 유대인 박해가 본격화되며 그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다. 이후 독일 부헨발트 수용소와 차이츠 수용소를 거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야 고향인 부다페스트로 돌아올 수 있었다. 케르테스는 홀로코스트

(Holocaust) 이후 △공장 노동자△변역가△작가로 일하며 다수의 철학자와 작가의 작품을 독일어에서 헝가리어로 번역했다. 그는 1957년에 발표한 '운명'을 시작으로 △'죄절'△'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기도'△'청산'을 각각 △1988년△1990년△2005년에 연달아 내놓으며 작가 생활을 이어갔다. 이 중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기도'는 케르테스의 '운명 4부작' 중 가장 자전적 성격이 짙은 작품으로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주인공인 '나'가 철학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이를 키우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작품은 주인공의 독백과 두서없는 생각의 나열로 진행되는데 이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시작 장면에서 아이를 키우던 질문에 완강하게 부정할 이유를 알 수 있다.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수용소로 끌려가 '살아남'이 아닌 '살아 전담'의 삶을 보냈다. 유대인이라 이유만으로 폭력에 시달렸던 '나'는 자신의 아이를 이러한 삶 속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아이는 아이를 갖길 원했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마음 또한 완고했다. 이에 둘은 오랜 갈등 끝에 이혼하게 된다.

1933년부터 시작된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 정권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1945년 나치 독일 정권이 △미국△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영국으로 이뤄진 연합국에 패배하며 막을 내린다. 홀로코스트가 끝난 후 생존자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갔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반유대주의적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수용소에서 겪었던 기억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케르테스는 수용소에서 겪었던 기억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서도 다음 세대에 자신에게 있었던 비인간성과 수많은 죽음을 물려줄 수 없단 의지를 놓지 않는다. 홀로코스트가 끝난 이후 그가 작가 활동에 몰두해 치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끔찍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을 것이다. 책에 나온 구절처럼 삶을 훼손하는 자들 때문에 삶을 혐오하게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다. 인류의 비극이 개인의 삶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9.7.(수)9:00 ~ 9.16.(금)17:00	2022.10.26.(수)9:00 ~ 11.4.(금)17:00
면접전형	2022.10.15.(토) 10:00부터	2022.12.10.(토) 10:00부터
합격자 발표	2022.10.28.(금) 14:00 예정	2022.12.23.(금) 14:00 예정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시-⑤합격자 확인

◆ 지원자격

- 1. 특별전형**
 -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2. 일반전형**
 -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실(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02)2173-2386, 2397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10.04(화) ~ 10.14(금)	2022.11.14(월) ~ 11.25(금)
고사장 발표	10.20(목) 15:00	12.01(목) 15:00
면접전형	10.22(토) 10:00 예정	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03(목) 15:00	12.1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7(월) ~ 11.11(금)	12.19(월) ~ 12.23(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어를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1.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른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내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생(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성적 제출서류
- 2)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1)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재관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1.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모두가 바라는 조용한 주거공간

최근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보복 범죄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해 심각성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학생들 역시 기숙사·자취 등 층간소음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속된 층간소음 문제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개선 및 대비책이 미비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현황△우리학교 학생들이 겪는 층간소음 피해△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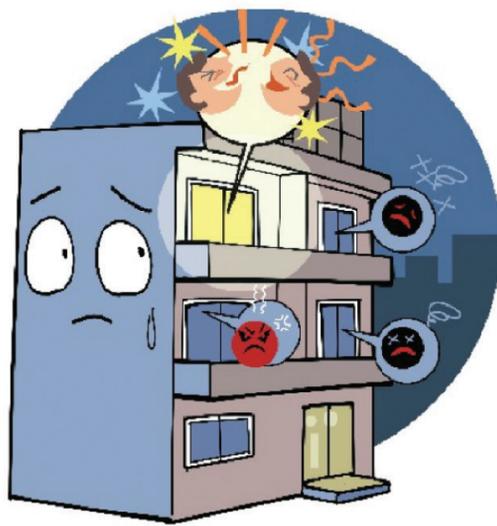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환경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019년 2만 6,257건에서 지난해 4만 6,596건으로 1.8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문 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한 현장 진단 요청도 6만 9,272건에 달했다.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냄새 보복△소리 보복△폭행 등이 있다. 2020년 6월 경상남도 양산에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하던 아파트가 스피커를 천장에 붙여 대응 소음을 유발하자 이웃 남성이 찾아와 폭행을 가했고 이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경상북도 포항에선 이웃 층간소음 보복 과정으로 복수 소음을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유튜브(YouTube) 영상을 이용해 개 짖는 소리 및 발 구르는 소리와 같은 생활 소음 영상을 최대 음량으로 트는 소리 보복을 가했다. 최근엔 냄새로 보복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화장실 환풍기 등을 통해 △담배 △모기향 △소독약과 같은 독한 냄새를 이웃집으로 전달시키는 것이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층간소음에 불편함을 느껴 화장실 환풍기 밑에 불을 붙인 담배를 꽂은 페트병을 두는 식으로 냄새 보복에 나섰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보복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대한이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원인은 크게 구조적 요인△인적 요인△제도적 요인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인적 요인은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구조적 요인은 개인이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구조적 문제는 국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구조 아파트가 실제 소음 차단에 취약하다. 벽에서 기인한다. 이번 해 공동주택 규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은 소음에 취약한 구조였다. 바닥 두께를 150~210mm로 만들거나 바닥 충격음 기준을 경량 58dB과 중량 50dB로 준수하는 등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 또한 층간소음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제도가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우리학교 학생들이 겪는 층간소음 피해

지난달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선 인근 원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에 우리학교 재학생이 연루되는 등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관하여 외대학보



▲ 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

에선 '층간소음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과 피해 사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층간소음을 경험한 빈도가 △주 1회 이상 2회 이하(54.5%)△주 3회 이상 4회 이하(27.3%)△주 5회 이상 6회 이하(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캠 주변 원룸에서 자취하는 이보현(국제지역·인도 19) 씨는 "우리학교 근처 원룸 대부분 방음이 잘되지 않음뿐더러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놀고 떠드는 소음 때문에 생활하는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밤과 새벽엔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에서 깨기를 반복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공동생활을 하는 우리학교 기숙사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기숙사 국제학사 사생 수칙 19항과 글로벌홀(Global Hall) 사생 수칙 18항에 따르면 사내 소란 및 소음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글캠의 기숙사 흡스돔(Hufs Dorm)도 마찬가지로 기숙사 생활 규정 4번 항목에 따라 사내 난동 행위 및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는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한 징계가 내려진다. 이어 기숙사 내 소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퇴사 징계가 내려진다.

이러한 규적이 있음에도 기숙사 내 층간소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학사에 거주하는 한민서(상경·국통 2) 씨는 "다른 학우가 새벽마다 전화하는 소리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호소했다. 흡스돔에 거주하는 서수혁(국제지역·브라질 22) 씨는 "흡스돔 내에서 술에 취한 학우들의 난동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자는데 불편을 겪은 경험

이 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어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 기준이 이전 주간 43dB과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가 △상담△소음측정△중재 대진 진행해 객관적인 감정 자료를 남길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층간소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도 가능하다.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고의적인 소음 유발 행위는 형사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호 인근 소란 혐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선 층간소음을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해 8월에 밝힌 바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집에 설치할 경우 시공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주택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입주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학교 측 역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학사 관리팀 관계자 B 씨는 "최근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없었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경비원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방침이다"고 전했다. 글로벌홀 운영팀 관계자 또한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경우 경비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경고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 후 층간소음 피해가 재발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홀에선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소음에 관한 기숙사 이용 수칙을 게시판에 부착해둔 상황이다. 이와 비슷하게 글캠 흡스돔 시설관리팀 관계자 C 씨는 "층간소음이 일어날 경우 학생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비원이 개입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층간소음 예방 및 불편 없는 주거 생활을 위해 우리학교 학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9.23(금) ~ 10.07(금)	2022.11.04(금) ~ 11.21(월)
고사장 발표	2022.10.19(수) 15:00	2022.11.30(수) 15:00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예정	2022.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11.04(금) 15:00	2022.12.1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2022.12.19(월) ~ 12.2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 - 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언어언어학과(문화언어언어학)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우웨이 어플리케이션 www.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과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전문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9.23(금) ~ 10.07(금)	2022.11.07(월) ~ 11.21(월)
고사장 발표	2022.10.19(수) 15:00	2022.11.30(수) 15:00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예정	2022.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11.03(목) 15:00	2022.12.1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2022.12.19(월) ~ 12.2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수료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북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 이수 특선선생
(논문·출판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521~2FAX. 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노란봉투법 개정안, 노사 간 흑백논리를 밝게 칠해야 할 때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은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이하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대한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청의 교섭 의무△손해배상 면책 범위 확대△손해배상액 제한△합법적 파업 범위 확

대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불법 쟁의 행위를 장려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쟁점△타협안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 속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떠오른 배경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조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시작됐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에 47억 원을 손해 배상하란 판결이 내려지자 여러 시민단체에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 측에 보낸 것에서 노란봉투법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됐다. 이후 모금 운동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으로 움직임이 확산했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계기로 논의는 8년 만에 재점화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3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고정비 지출과 자체 보상을 주요 근거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전에 논의된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노조법 2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제한 항목을 담은 3조를 다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청의 교섭 의무△손해배상 면책범위 확대△손해배상액 제한△합법적 파업 범위 확대다. 이번 개정안은 노조의 단체 행동에 가해지는 손해 배상과 가압류의 규모 및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노조법 제3조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폭력·과포 행위 이외의 불법 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폭력·과포 행위임에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의해 발생한 경우△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우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 배상의 상한까지 기업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임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이뤄진 파업만 합법으로 인정됐던 전과 달리 정리하고 반대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까지 합법으로 보도록 해 파업 보장을 더 확장된 개념으로 명시했다. 파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늘리고 기업의 손해에 대한 노조의 면책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엔 근로자의 개념을 한층 거시적으로 보려는 시도도 담겼다. 회사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만을 근로자로 규정했던 기존 법안과 달리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 고용직과 하청을 준 업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본청은 하청노조 교섭에 응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는 기업이 하청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대한 책임을 회피해 발생했던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이번 해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추진하는 '민생 야권연대 법안 1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가압류·손해배상 실태와 세계적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법안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며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개정안은 모두 8개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노란봉투법에 반발하는 목소리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크게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과 기업의 쟁의 대항 수단이 부재하단 것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노란 봉투법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재산권에 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법안에 노조의 폭력·과포 행위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정당한 △목적△수단 △절차에 의해 파업 행위가 벌어진 경우 노조법상 노동자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파업 행위에 대한 면책은 우리나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이 노조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쪽으로만 과도하게 치우쳐 기업의 쟁의 대항 수단이 부족하단 의견도 존재한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파업 손해의 범위를 엄격하게 따지거나 손해배상 청구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조 특성상 파업이 먼저 국내 기업은 파산의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개정된 노조법에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기 힘들단 것이다. 경영계에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제도 정비△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쟁의 행위에서의 개선 사항으로 꾸준히 요구했으나 관련 법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노조의 합법적 파업에 대한 기업의 대항적 조치를 막아 기업에 크게 불리한 규정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파업 시 대체근로는 △병원△수도△전기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 한해 파업 참가자의 50% 내에서 가능하고 그 외엔 모두 금지돼 있다. 이에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한다면 그에 대한 기업의 대체 인력 투입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은 폐업 이외엔 대항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간 합의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단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파업권과 영업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파업 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법 선진국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도 일부 제한을 두고 대체근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체근로 금지의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인 파업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아자동차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 동안 27년 동안 파업이 진행됐으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430회가 넘는 파업을 겪었다. 경영계는 무분별한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약화는 곧 연구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달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 타협안을 찾기 위해선

다른 나라에선 기업이 쟁의 행위를 이유로 노동자나 노조에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드물다. 노동권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이나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청구권과 함께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장치 또한 구축돼 있다. 영국은 노조 규모에 따라 배상액의 상한선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법이 아닌 각 판례에 따라 판단하는 독일은 파업 손해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 지난 2012년 독일의 기업 '루프트한자(Lufthansa)'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900만 유로를 주장하며 그보다 더 적은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청구권에 따른 방어장치로 인해 사측의 실익이 크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드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쌍용자동차△2010년 현대자동차와 케이씨씨(KCC)△2011년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2013년 상신브레이크△2018년 CJ대한통운 등 기업이 노조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손해배상금 액수 또한 몇십억 단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민주당은 앞선 위헌 논란을 반영해 합법적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는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선 우리나라에 비해 파업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어 손해배상 청구 금지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우리나라만큼 크진 않다. 프랑스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 등 △고용보장△고용안정을 위한 파업△민영화 반대를 위한 파업△사회적·경제적 파업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쟁의 행위는 모두 정당한 파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파업 시 기업 유지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동권과 재산권 사이 합리적인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노사 간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압수 수색해

지난 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이 대표)의 측근인 신 모 씨가 소속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신 모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대북 관련 사업을 책임졌던 국장급 인사였다. 검찰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쌍방을 그룹이 추진한 대북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과 경기도청을 수사에 착수했다.

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보건복지부에 마약 통칙 마련 요청해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치료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청년층과 여성층에서 마약 중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마약중독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경제 영국 대규모 감세안 발표, 파운드화 쇼크 발생해

지난달 23일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은 가계 및 기업 부담을 덜어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450억 파운드(약 73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영국 금융시장에 파운드화를 매각하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파운드 쇼크가 발생했다. 이러한 대규모 매각으로 인해 영국 내 해외 기업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지며 전 세계 규모의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해

지난 6일 스웨덴 한림원은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이하 에르노)를 선정했다. 이로써 에르노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17번째 여성 작가가 됐다. 한림원은 에르노에 대해 "삶 속에서 계급과 성별로 인해 드러나는 커다란 차이를 여러 각도에서 탐구했다"고 노벨문학상 수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존폐위기의 지역화폐, 지역경제를 위한 슬기를 발휘해야 할 때

지난 8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고유 사무에 더 이상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역외 소비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자 유인책으로 기능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측면도 존재한다. △지역화폐의 현황△지역화폐의 실효성△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지난 8월 30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다음 해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액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앞으로 해당 사업을 이어갈 의향이 있다면 자체적인 예산만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 자원만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단 판단하에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의 할인 혜택을 줄이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일부 지자체는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화폐란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거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대안 화폐이자 상품권으로 △모바일형△지폐형△카드형 등 다양한 발행 형태를 가진다. 지역화폐는 1832년 영국의 노동증서*에 유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됐다. 오늘날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상품의 소비와 유통을 촉진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이러한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해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유통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을 5~10% 할인해 발행하는 방식과 △아동수당△양육수당△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대체·전환하는 방식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지역화폐의 발행 액수는 1,000억 원이며 정부는 그중 10%인 100억 원을 지원했다. 당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지자체는 66곳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발행 및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며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도 늘어났다. 지난해 지역화폐의 발행액은 20조 2,000억 원 규모였으며 정부의 지원도 1조 2,522억 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와 이번 해까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지자체는 232곳이다. 우리나라 지자체 총수가 243곳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지난 2020년 12월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비판적인 논의가 존재한다. 지역화폐의 예상 효과는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러나 보호무역조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지역화폐의 기능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

다.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지출을 특정 지역 내로 한정시킨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소매업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선택의 범위가 제약돼 소비자 후생 및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지출을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생겨난 온누리상품권을 지역화폐가 단순히 대체하는 경우와 지역화폐의 도입 이전에도 소비자들이 지역 내 소형마트에서 가계의 일정 부분을 지출하고 있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에선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엔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광고홍보비용 및 행정 관련 비용과 같은 고정비용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를 저렴하게 매입한 뒤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환전하는 일명 '현금강'에 대한 단속 비용 등의 손실도 존재한다.

그러나 2020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정기 발간물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에선 지역화폐가 갖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발간물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지역화폐 이용자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이용자의 지역 내 소비 금액은 약 30만 원 증가했다. 또한 발간물에선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가맹점은 지역화폐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3.4%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은 0.4% 감소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최종환전 비율은 99.8%이며 소상공인의 67.6%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매출 증가 효과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다음 해 예산안에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업의 운영을 축소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역화폐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역화폐의 예산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 8월 월간 운영비를 21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감액하고 캐시백 비율도 10%에서 5%로 감소시켰다. 일부 지자체에선 지역화폐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할인 혜택을 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이며 운용 방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9월까지 인천광역시시는 가맹점의 연 매출액에 구애받지 않고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인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10%의 캐시백을 적용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인 경우엔 결제 시 5%를 적용한다. 조인권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의 혜택을 최대한 높이는 것과 캐시

백을 차등 적용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라북도 익산시도 지역화폐에 대한 실효성이 컸기에 현재의 기초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전라북도에서 부담하는 보조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다음 해에도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의 지역화폐는 전국에서 가장 할인율이 높고 사용도 편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했다"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만큼 다음 해에도 현재의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 2004년 일본의 도쿄 지역에서 발행된 지역화폐 '아톰(ATOM)'은 단순한 구매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없다. 해당 통화는 커뮤니케이션형 지역화폐로 지역 공동체의 상호부조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됐다. 아톰을 얻으려면 지역의 각종 환경 문제 해결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 거리를 청소하거나 비닐백 대신 재활용 백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아톰이 주어진다. 이처럼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회 공헌 참여율을 높이는 아톰은 지역화폐 제도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또한 지난 2012년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시는 지역화폐인 '브리스톨파운드(BP)'를 발행했다. 소비촉진형 화폐에 해당하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유사하며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수단으로 이용한다. 브리스톨시가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기업이 운영한 해당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가맹점을 유치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브리스톨 시장과 직원의 일부 급여로도 지급됐으며 시민들이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화제가 됐다. 브리스톨파운드 역시 아톰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지역화폐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및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도입된 지역화폐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관해 다각도로 분석하며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 노동증서: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가치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이를 상품·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게 만든 대안 화폐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혼자선
할 수 없는 일

지난달 말 축제로 학교가 떠들썩했다. 나 또한 그 떠들썩한 축제를 즐겼다. 맛있는 음식들을 양손에 가득 들고 돛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었고 학우들과 학교 이곳저곳을 함께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 모든 시간은 외대학보 사람들과 함께였다. 값비싼 음식도 아니었고 편안한 의자도 없었지만 그 날이 행복했던 건 좋은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이다.

난 새로움을 즐기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내겐 큰 도전이다. 그럼에도 외대학보에 지원할 땐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동안 고민하다가 놓쳤던 다른 기회들을 생각했다. 이번에도 고민만 하다가 도전조차 안 해보고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았다. 그렇게 외대학보 수습기자에 지원했다. 조금만 더 고민했다면 지원 시기를 놓치고 이후에도 매 학기 수습기자 모집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고민할 반복했을 것이다. 1차 시필 과제와 2차 면접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선발 과정에서 내 부족함을 스스로 느꼈기에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외대학보 합격 문자를 받고선 특별한 날도 아닌데 선물을 받았을 때와 같이 놀랐고 감사했다.

외대학보에서의 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으로 1070호 학술 기사를 쓰게 됐을 땐 취재원을 통해 인터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언제까지 답장을 기다려야 하는지, 답장이 없어 다른 취재원에게 연락했다가 인터뷰가 중복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일을 수습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그때 편집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게 친절히 알려줬다. 지난 1071호 마감도 쉽지 않았다. 기사의 주제를 정했지만 인터뷰를 거절당해 마음을 준비하던 중간에 주제를 바꿔야 했다. 마음이 안 좋았던 그때 차장 선배와 105기 동기들이 내 옆에서 위로를 해줬다. 그들이 있었기에 다시 힘을 얻어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번 1072호를 준비하면서도 더운 날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함께 해준 부장 선배 덕에 인터뷰를 잘 마쳤다. 밤샘 마감을 할 때는 침대에 누워 눈이라도 붙였지만 국부장단은 밤을 꼬박 새우며 여러 차례 피드백을 해줬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내 부족함과 미숙함은 △105기 동기들△차장들△국부장단의 도움으로 가려질 수 있었다. 기사의 바이어린은 내 이름 하나로 나가지만 그 기사는 결코 나 혼자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아니, 문득 외대학보 모집 공고문에 쓰여 있던 문장이 떠올랐다.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 내가 외대학보 지원을 오래 고민하지 않았던 건 어쩌면 이 한 줄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단 생각이 든다. 밤을 새우며 마감을 진행하기에 모두가 힘들어도 우리 서로의 소소한 말 한마디에 눈물 나게 웃는다. 난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힘겹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쌓고 있다.



김예주 기자

[책 '마음'을 읽고]
나의 욕망으로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길

나쓰에 소세키(이하 소세키)의 '마음'엔 인간 심리에 대한 묘사가 잘 나타나 있다. 주인공인 '나'가 존경하지만 쉽게 가까워질 수 없는 '선생님'은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여겨진다. 선생님은 비밀이 많은 신비로운 존재였다. '나'가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 선생님은 죽음을 앞두고 '나'에게 유서를 보낸다. 유서엔 선생님이 젊은 시절 겪은 지난날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은 대학 시절 하숙집에서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다. 짧은 대화가 오가며 선생님은 사모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품었고 하숙집의 주인인 사모님의 어머니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에게 같은 대학에 진학한 오랜 친구 'K'가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K를 돕고 싶은 선생님은 그에게 같은 하숙집에 들어올 것을 권유한다. 선생님은 말수가 적고 어두운 K를 사모님과 그녀의 어머니께 소개하며 K의 성격이 밝아지길 바랐다. 그러나 K와 사모님의 사이가 가까워진 모습은 선생님께 큰 불안으로 다가왔다. 다급한 마음에 선생님은 K가 모르게 사모님의 어머니께 사모님과 결혼을 약속받는다. 하지만 이후 K가 선생님께 사모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자 선생님은 큰 혼란에 빠지고 K를 불쾌해하기 시작했다. 불쾌한 질투의 감정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K를 더욱 멀리하게 만들며 의심하도록 부추겼다. 그렇게 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모님의 어머니는 K에게 선생님과 사모님의 결혼 소식을 전한다. K는 결혼 소식을 들은 지 이틀 후 실의에 빠져 자살한다.

선생님과 K는 사모님을 욕망했다. 이 경쟁으로 인해 K는 희생했지만 희생양은 자살한 K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쟁의 표면적인 희생양은 K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경쟁에 연관된 △사모님△선생님△K 모두가 경쟁의 피해자다. 사모님은 내마를 모른 채 K를 마음 속에 묻어 버렸다. 선생님은 친우를 잃은 이후 자신의 행동들을 후회하며 세상에 나아갈 의욕을 잃어버렸다. 또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친우의 죽음을 방치했던 자신의 과거를 사모님께 밝히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괴로워했다. 어쩌면 선생님은 욕망이 낳은 폭력성을 절감해 은거하며 욕망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희생을 차단한 걸지도 모른다.

욕망은 자연발생적이지 않으며 △광고△다른 사람△소셜 등과 같은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생존과 관련된 욕구가 아닌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욕망은 노력을 통해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욕망과 얽힌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내 마음에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며 내 욕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명나디 기자 05nadi@hufs.ac.kr

[영화 '코치 카터'를 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날 완성시킨다

지난 2005년에 개봉한 영화 '코치 카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고등학교 농구 코치를 맡은 켄 카터(이하 카터)의 지도력과 농구부 학생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직 농구선수이자 스포츠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카터는 자신의 모교인 리치몬드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제안받는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농구부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앞자리에 앉을 것△수업에 결석하지 않을 것△학점 평점을 2.3으로 유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제출시킨다. 선수들은 카터의 제안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몇 명의 유망주들은 농구부를 탈퇴한다. 그는 각서에 동의한 학생들을 데리고 높은 강도의 훈련을 시작한다. 농구부 학생들의 실력은 좋지 않았지만 카터는 신경 쓰지 않고 선수들의 기초체력과 협동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진행했다. 이후 리치몬드 고등학교 농구부는 차츰 유망한 팀으로 성장한다. 어느 날 카터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성적 또한 낮단 사실을 알게 되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농구장을 자물쇠로 잠가버린다. 농구팀의 발전에 취해있던 학부모들과 스포츠운영위원회에선 이러한 교육 방식에 반대했고 결국 카터는 코치직 은퇴를 고민한다. 그러나 농구부 학생들이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는 모습에 감동한 그는 선수들의 성적이 오르자 다시 코치직을 맡는다. 리치몬드 고등학교 농구부는 주 도너먼트에 출전해 실력이 가장 뛰어난 팀을 상대하지만 아쉬운 점수 차이로 패배한다. 팀은 패배했으나 서로에게 고생했던 의미의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영

화는 막을 내린다. 이 영화는 학생이 스스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현명한 교육자의 모습을 그려냈다. 영화 초반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카터의 엄격한 규칙에 반항했다. 이는 사랑과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카터의 진심이 담긴 관심과 노력은 이러한 학생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다. 그들은 카터를 통해 인생에 농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람에게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야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관심과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다. 영화 속에서 카터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우리가 남보다 뒤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없이 많은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어떤 잠재력을 지녔는지 알지 못더라도 잠재력 자체를 지니고 있던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지속해서 상기시켜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

1071호 학보를 읽고

학내 구성원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10월을 맞이하는 가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지난 외대학보 1071호에선 △동아리 공간에 대한 문제△학생식당 음식(이하 학식) 가격 인상△이론차 문제△전세보증사기에 관한 인식 등 주제와 관련된 여러 시사점을 제시했다.

3면에서 다룬 동아리 공간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을 미뤄선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학교 내 동아리의 수는 많지만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 이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검토부는 현재 일주일에 한 번만 오바마홀을 대관할 수 있어 연습량이 부족한 상태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상황도 좋지않은 않다. 현재 글캠 테니스부 동아리 'ACE'는 동아리 전용 공간이 존재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시설 노후화로 공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학교는 동아리 시설 대여비 지원이나 관련 제후 등 동아리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는 동아리 공간 문제뿐만이 아니다. 현재 서울캠퍼스의 인문과학관 학식과 교수회관 식당의 학식 가격이 낮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1,000원까지 인상됐다. 4면 기획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식 가격은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해서 인상됐다. 그러나 학식은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생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 학교 측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학식 판매 가격 동결을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5면에선 캠퍼스 내 이론차 이용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등 이론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양 캠퍼스(이하 양캠)의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양캠에선 이론차의 교내 출입

윤영규(영어 · EICC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71호 학보를 읽고

셋노랑과 새빨강사이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바람의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지며 계절은 코끝으로 빠르게 지나간다. 외대학보 1071호에선 대면수업 전환 후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을 다뤘다. 여러 문제점 중 특히 △전세보증사기△캠버스 내 이론차 문제△학내 동아리 공간 확보 문제 등 학생 복지 및 피해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3면의 학내 동아리 공간 확보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기간부터 양 캠퍼스(이하 양캠) 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던 문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동아리방이 폐쇄돼 부원 모집과 동아리 운영이 힘들어진 대부분의 동아리가 활동을 중단했다. 대면수업 전환과 함께 많은 동아리가 부원 모집을 재개하며 이전 모습을 회복하려 노력하곤 있으나 현 공간 대여 방식의 문제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동아리 역시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록한 동아리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한편 학교 측과 동아리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동아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4면에선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해 다뤘다. 양캠 모두 학식 가격이 올라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비롯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란 학교 측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학식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제공돼야 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측의 의견에도 동의한다. 학식 가격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제시했고 총학과 학교 측의 의견을 모두 다뤄 독자들이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해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코로나19로 인

김현익(공과 · 컴전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해 글캠 후생복지단 학식을 운영하는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도 운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학교와 학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도 도출되길 바란다.

캠퍼스 내 이론차 문제를 다룬 5면의 기사에선 우리학교 재학생들의 이론차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하게 느껴졌다.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며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캠퍼스 내 이론차 이용 현황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사가 있어 좋았다. 교내 이론차 출입 금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부족과 미흡한 사고 방지 대책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론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건전한 사용문화를 정착시켜 이론차를 안전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7면에서 다룬 전세보증사기 문제는 청년층에서 증가한 피해에 비해 학생들이 피해 예방 및 대안을 잘 알지 못해 문제가 된 현안이다. 현재 대면수업 전환 후 학교 주변 주거지의 수요가 증가했기에 주거지 관련 피해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의 정확한 예방 대책 숙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보증사기의 피해 예방 방안을 궁급해하는 주위 학생이 많았는데 시의성 있는 기사를 제공해 인상 깊었다. 청년들의 미래가 전세 제도의 취약점으로 인해 어두워지지 않길 희망한다.

캠버스 전체가 총천연색 단풍으로 물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내 구성원들이 있어 학교가 금방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각자 보람된 하루를 위해 캠퍼스를 열심히 활보하는 학생들을 보며 큰 행복을 얻는다. 더 나은 학교와 더 많은 학생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 학교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외대학보에게 감사하다.



학보의 가치

국·부장 고정칼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대학언론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외대학보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비대면이란 제약 아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최근 코로나19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보사의 취재 진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열악한 환경 속 기자들은 학보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고민했다. 학보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학내 구성원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학내언론으로써 학교와 학생을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한다. 이번 1072호엔 그러한 학보의 가치가 담겨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오랜 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은 전국 사립대학에 재정난을 불러왔다. 특히 우리학교는 지난해 기준 등록금 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만큼 피해가 컸다. 이에 우리학교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폭 확대했다. 무리한 유학생 유치는 결국 유학생 관리 부실이란 문제를 야기했다. 외국인 유치에 집중된 학교 측과 입학 후 많은 난항을 겪어야 했던 유학생 모두의 입장을 기사에 담으려 노력했다. 재정난과 이에 따른 유학생 유치는 더 이상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학생과 학교 측 모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고민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의 주요 제도인 교환학생 제도와 7+1 파견학생 제도 등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개설 이후 오랜 기간 학생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러나 최근 △불투명한 선발 기준△선발 인원 감소△7+1 파견학생 제도의 우수 선발과 학과 선발 인원 통합 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학생과 대 학 간 소통의 부재는 상황을 악화시켰다. 학생들의 높은 수요에 비해 파견 선발 인원이 현저히 적은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학교 국제교류지원팀이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과정에 대해 강한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학생들의 유학길이 더 이상 좁아지지 않길 기대한다.

이번 호의 제작 과정 역시 쉽지 않은 않았다. 취재를 맡은 기자들은 밤낮없이 취재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취재원을 구하지 못한 기자들은 신문의 마감날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인터뷰에 매진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발로 뛰어다니며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기자들과 그 노고를 알고 매번 학보를 찾아주는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전한다. 그들 모두의 도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학보의 가치가 빛날 수 있었다.

김하형 부장 03hahyung@hufs.ac.kr



사실을 다루는 글의 힘

10월은 노벨상의 계절이다. 분야별로 수상자가 발표되는데 올해 노벨문학상은 프랑스의 여성 작가 아니 에르노(Annie Ernaux)에게 돌아갔다. 늘 그렇듯 노벨상은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자기 길을 꾸준히 걸어 온 이에 게 세상이 전하는 고마움이자 찬사다. 노벨문학상 또한 그 점에서 작가의 위대함을 줄 세우기 하듯 평가하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던 작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

1940년에 태어난 에르노는 노르망디 작은 마을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부모님 아래서 자라 문학을 공부했다. 교사 자격증을 따고 여러 학교와 기관에서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해왔다. 그런데 글을 읽어보면 매우 파격적이다. 숨기고 싶은 개인의 내밀한 경험을 적나라하게 기술한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쓴 그다. '사건'이나 '세월' '단순한 열정' 등 에르노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읽은 적이 있다. 창작에 대한 열의가 타오르던 때였다. 칼날 같은 예리함으로 기억의 뿌리를 헤집는 에르노의 글을 읽으며, 사실에 대해 얼마나 엄정한 철학을 갖고 있기에 이토록 냉정하게 글을 쓰는 걸까, 작가가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소설은 흔히 상상력에 바탕을 둔 허구의 이야기로 간주된다. 그래서 사실과 거리가 먼 형식으로 여겨진다. 얼토당토않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두고 '소설 쓰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통념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큰 오해다. 문학 언어는 실은 이 세계의 현실에 가장 밀착된 언어 형식이다. 에르노의 경우 계급과 성별에 따른 억압과 차별을 담은 작품을 주로 썼는데, 낙태 등 예민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드러내었기에 독자와 평론가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다. 젠더 차별, 가부장제의 폭력, 육체, 병, 계급주의 등을 냉정하게 파헤치는 글을 써 온 작가는, 자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의 책무를 이어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이야기한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다루는 글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사실의 세계는 평평한 듯 보이지만 사실을 다루는 일은 결코 평평하지 않다. 기자든 작가든 과학자든 의사든, 사실을 다루는 일에는 세심하고 엄정한 객관성 외에도 선택과 집중, 가치 판단이 따른다. 그러한 선택과 집중, 판단에는 어떤 지향이 있다. 바로 더 나은 세계를 그려보는 비전이다. 사건 현장을 열심히 누비는 기자의 취재와 기사도 사실을 다루는 글의 힘을 잘 보여준다. 이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보는 일은 더 나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과 고스란히 겹쳐진다. 그 점에서 신문 기자의 일이나 작가의 일이나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의사의 일이나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나노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일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한다. 사실에 기반을 두고 엄격하게 현실을 판단하는 동시에 미래를 그려보는 것. 지금 현실의 여러 문제들, 불균등한 세계의 현실을 응시하면서 다른 현실을 그려보는 힘.

에르노는 2022년 노벨문학상을 탄 미국의 시인 루이즈 글릭의 뒤를 이어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여성으로는 17번째의 수상이 되었다. 1901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117명의 수상자를 낸 노벨문학상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여성에게 할당된 17명의 의미를 조용히 생각해본다. 가끔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 얼굴을 보며 30년 뒤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하곤 한다. 이들의 꿈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열리고 있을지, 사실을 다루는 글의 힘을 믿는 이들이 이 세계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용기 있게 글쓰기를 계속한다면 이 세계가 조금 더 좋아질지... 질문은 계속 이어진다. 좋은 글은 무엇일까? 문제적인 현실을 두루뭉술하게 버무리며 관찮으니 걱정마라 하는 것이 좋은 글은 아닐 것이다. 병으로 굶아가는 환부를 슬그머니 덮어 관찮다고 하는 행위처럼 선의로 포장한 어떤 말은 때로 독이 된다. 그러니 우리, 칼날 같은 글에 베이기를 두려워 말자. 우리의 둔탁한 시선을 명징하게 밝혀준다면 그 예리한 날이아말로 새로운 연대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자신의 육체와 감각, 사고를 글쓰기의 재료로 삼은, 그래서 타인의 삶에 녹아드는 보편적인 것이 되기를 꿈꾼 에르노의 날카로운 글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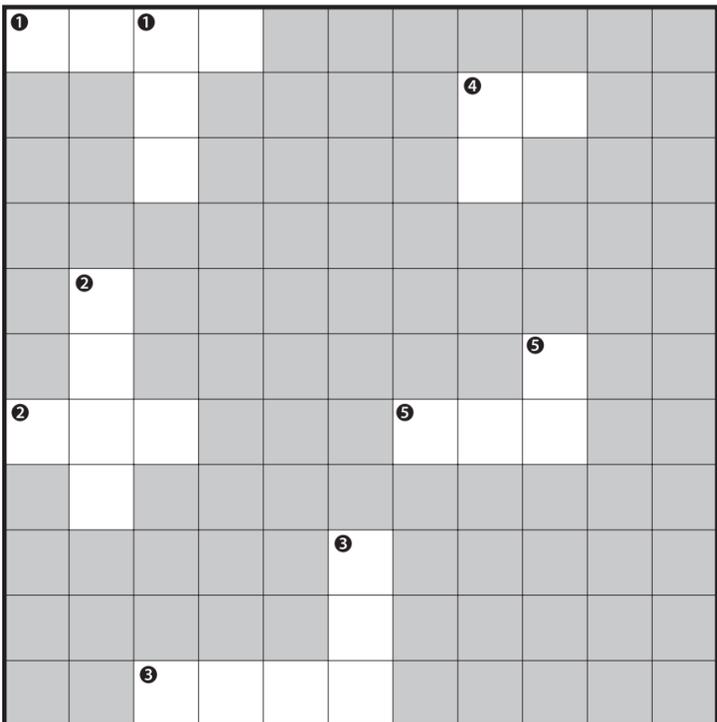
·정은규(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만평



변은서(서양어·스칸어 18)

십자말풀이



가로

- 문제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보복 범죄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해 심각성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7면 참조)
- 한편 학교 내의 외국인 ○○○을 위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단 시간도 존재한다. (5면 참조)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우리학교 ○○○ 프로그램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면 참조)
-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더 이상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 입장을 밝혔다. (9면 참조)
- 특히 이번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12면 참조)

세로

- 회재가 발생하면 최소 3대 이상의 ○○○가 동시에 출동하기에 충분한 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3면 참조)
- 스페인 거주 당시 오전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엔 ○○○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6면 참조)
- 이번 개정안은 노조의 단체 행동에 가해지는 손해 배상과 ○○○의 규모 및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면 참조)
- 홀스들의 기존 인터넷망은 외부 사업자가 관리해 매해 7,600만 원의 관리비가 ○○됐다. (2면 참조)
- 지난달 2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강일갑(서양어·스페인어 79) 주식회사 글로리스(Gloris, INC.) (이하 글로리스) 회장(이하 강 회장)의 학교○○기금 10만 달러(약 1억 4,300만 원) 기탁식이 열렸다. (1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3raesa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규
 편집장 장래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세계민속문화축전과 퀸쿠아트리아, 뜨거웠던 가을

지난 27일 죽전 야외음악당에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제32회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이 열렸고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2022 QUINQUATRIA: LIGHT UP(이하 퀸쿠아트리아)'이 개최됐다. 세민전에선 △그리스·불가리아학과와 '오니로빠야' △

크라이나어과의 '칼리나' △폴란드어과의 '마주르카' 등 9개 학회의 민속 문화 공연이 진행됐으며 퀸쿠아트리아에선 △부스 운영 △인권문화제 △학우 참여 및 외부 찬조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졌다. △글캠의 세민전 △설캠의 퀸쿠아트리아 스나이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글로벌캠퍼스의 세계민속문화축전

지난달 27일 오후 7시 죽전 야외음악당에서 세민전이 열렸다. 1971년 개최 이래 이번 해 32회를 맞는 세민전은 어학 전공의 학생들이 직접 무대를 꾸며 각 국가의 민속춤이나 노래를 보여주는 축제다. 매해 개최되는 세민전은 홀수 해엔 교내, 짝수 해엔 교외에서 열려 캠퍼스를 넘어 지역 사회에까지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세민전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세민전은 개최 이후 △공공외교 실현 △다양한 문화 화합 도모 △세계 문화 이해와 존중의 자세 함양의 역할을 한다. 이후주(응인 21) 세민전 준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위원장)은 "다양한 언어 관련 학과가 존재하는 우리 학교의 특성을 살려 각 언어권 국가들의 민속 문화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세민전의 주제는 여행이었다. 이에 맞춰 각 학회는 여행 티켓을 제작했고 홍보 영상도 해외 여행을 하는 느낌을 주도록 제작됐다. 공연엔 △우크라이나어과의 '칼리나' △그리스·불가리아학과와 '오니로빠야' △폴란드어과의 '마주르카' △스페인어통번역학과와 '로스호베네스' △러시아학과와 '라도스찌' △아프리카학부의 '트윈보' △체코·슬로바키아어과의 '폴카' △인도학과와 '산다르' △한국학과와 '나빌레라' 순으로 9개 학과 및 학부의 학회가 참여했다. 진행은 박세정 아나운서(영여·영문 02)와 한준혁(통번역·중국어 16) 전 글캠 학생회장이 맡았다. 이연아(국제지역·아프리카 20) 씨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전공 지역의 문화를 학우들과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공연을 관람한 최다희(응인 21) 씨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민속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한 모든 학회원이 오랜 기간 연습한 노력이 빛났던 무대였다"며 "앞으로도 더 풍부한 공연과 콘텐츠가 준비돼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캠퍼스의 퀸쿠아트리아

우리학교 설캠에선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가을 대동제인 퀸쿠아트리아가 열렸다. 퀸쿠아트리아란 로마인들이 로마 신화 속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를 기리는 축전의 이름이며 2018년부터 우리 학교의 고유한 축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번 퀸쿠아트리아의 기조는 'LIGHT UP'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렸던 대학생들의 로망과 활기를 다시 한번 눈부시게 밝혀내란 의미다.

축제 첫날인 28일엔 군인권센터 강연이 진행됐고 저녁 7시에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 깃발 퍼레이드와 '외대풍물패연합'과 사범대학 풍물패인 '한솔밥'이 함께한 풍물 공연이 진행됐다.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9일과 30일엔 △단과대학 및 학과(부) 부스 △동아리 공연 △외부 가수 찬조 공연 △푸드트럭이 진행됐다. 운동장에선 △단과대학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학과(부) 등의 단위가 진행한 23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노어과와 이탈리아어과 등 각 학과의 특성을 살려 다른 나라의 음식을 준비한 부스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KFL 학부 등 전공과 관련된 퀴즈를 마련한 부스가 있었다. 경제학부 부스를 운영한 강서연(상경·경제 21) 씨는 "봄 축제 때의 경험으로 이번엔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동아리 공연엔 △노래나래 △새물결 △아이기스 △휴스 도비(HUFS DOVY) △휘모리 등이 참가했고 외부 가수 찬조 공연엔 △스텔라장 △카터가든 △스키 △정하가 무대를 꾸몄다. 푸드트럭은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오바마홀 맞은편에서 △진심화덕 피자 △좋은날쥬러스 △옛날분식 등이 운영됐다. 좋은날쥬러스 관계자는 "우리학교 축제의 경우 한 달 전에 연락이 닿아 미리 가게 운영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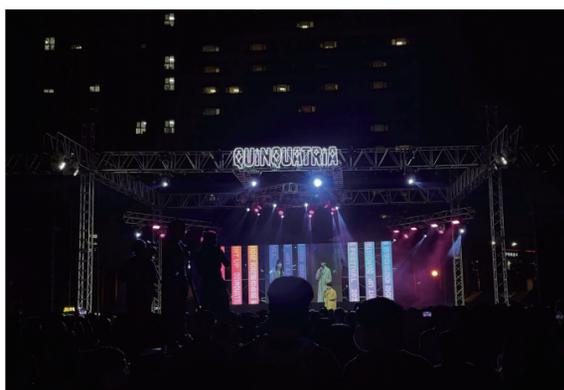
이재은(사회·정의 20) 총학 퀸쿠아트리아 기획단장(이하 이 기획단장)은 "봄 축제의 경우 공연과 부스로만 구성된 점이 아쉽던 반응이 있었다"며 "이번 퀸쿠아트리아는 캠퍼스 전 지역을 활용하고 공연과 부스의 규모도 확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엔 △스트리트 휴스 파이터(△STREET HUFS FIGHTER) △인권문화제 부스 △책 읽는 잔디광장 행사 △플리마켓 △FBS가요제 등 새로운 콘텐츠들이 추가됐다. 인문과학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플리마켓엔 서울시캠퍼스타 사업단과 함께 청량리 종합시장과 이문동 상권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었다. △기치한끼 △담가불라 △아워후 등 청량리 종합시장 부스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베이크어데이 △아일랜드비크레 이저커피 등의 이문동 상권 부스는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됐다. 가



▲우리학교 폴란드어과 민속춤 학회 '마주르카'의 공연



▲우리학교 러시아학과 민속춤 학회 '라도스찌'의 공연



▲설캠 운동장에 설치된 퀸쿠아트리아 공연 무대



▲설캠 운동장에서 운영된 학과별 부스

치한끼 관계자는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 "△청년물 △청량리 종합시장 △총학생회 간 소통이 잘 돼 좋았다"고 전했다. 새로 추가된 플리마켓 콘텐츠에 대해 이기환(상경·국통 17) 씨는 "코로나19 이전엔 플리마켓 부스와 같은 외부 부스가 많지 않았다"며 "우리학교 축제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인권문화제 부스엔 △대학생기후행동 △원쪽날개 △인권센터 △평화나비네트워크 등이 운영하는

총 11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잔디광장엔 도서관장과 인권문화제 참여 동아리 등의 추천 도서가 비치됐다.

◆더 나은 축제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앞선 축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층 발전된 축제 및 축전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단 반응도 존재한다. 세민전의 경우 활발한 홍보 활동이 부족했던 지적이 있었다. 또한 참여 학과 다양성에 대한 아쉬움도 이어졌다. 지난 세민전에 참여했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과의 '폴로' △중앙아시아학과와 '골데르' △태국어통번역학과와 '텡티다' 등의 학과가 참여하지 않으며 세민전에 참여하는 학과가 더욱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 코로나19 이전 교내에서 진행된 제29회 세민전에선 스나라 별 탄생석 악세사리 판매 △페이스페인팅 △푸드트럭 등 다양한 플리마켓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해에 진행된 세민전에선 공연만이 진행돼 공연을 찾은 관객들이 즐길거리는 부족했다. 김예림(경상·GBT 20) 씨는 "세민전이 끝난 후 SNS를 통해 홍보글을 볼 수 있었지만 교내에서 오프라인 홍보가 이뤄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우리학교의 고유한 특별 행사만큼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온오프라인상으로 더욱 활발한 홍보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퀸쿠아트리아의 경우 외부와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뒤늦은 일정 공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푸드트럭과 외부 플리마켓의 경우 푸드트럭은 한 달 전에 상인들에게 미리 일정을 공지하고 확정했지만 청량리 종합시장 부스의 경우 일주일 전에 일정이 확정돼 공지됐다. 청량리 종합시장 부스에 참여한 아워후 부스 관계자는 "해당 행사에 대한 공지를 행사 일주일 전에 받아 준비 시간이 촉박했다"며 "준비를 위해 공지를 일찍 해준다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구성원의 부스 운영에 대한 아쉬움도 존재했다. 운동장에 마련된 학과 및 학부 부스엔 34개의 부스가 참여했으며 인권 부스를 포함해 약 40개가 참여했다. 그중 △베트남어과 △스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스페인어과 등 우리학교만의 특이한 언어학과를 가진 아시아언어문화대학의 경우 아랍어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부스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좌윤(아시아·인도어 19) 씨는 "부스 운영을 한 학과가 적어서 다양성 측면에서 아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각 학과별 나라별 테마를 활용해 세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이 기획단장은 "우리학교 구성원의 부스는 약 40개가 운영됐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다음 축제에선 이 부분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짧은 부스 운영 시간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일본대학과 독일어교육과 등 오후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스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학생들이 9시가 끝나는 오후 6시에 축제를 즐기러 나올 땐 대부분의 부스가 운영을 마친 것이다. 이에 대해 송민서(경영·경영 21) 씨는 "부스의 운영시간이 짧아 수업이 늦게 끝나는 학생들은 부스를 즐기지 못할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휴식 공간이 부족했던 의견도 존재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축제에선 운동장 가운데 부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축제에선 볼 수 없었다. 운동장의 모래로 인해 위생적인 문제가 있었던 의견을 반영해 분관 뒤 공간엔 푸드존과 운동장 뒤 공간엔 돗자리를 설치했지만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어 자리가 부족했다. 이에 학생들은 운동장 뒤편에 있는 계단에 앉거나 서서 음식을 즐겨야 했다. 이 기획단장은 "도서관 앞 산책로나 법학관 앞 잔디 공간에 빈백(Beanbag)이나 돗자리를 더 설치해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인 만큼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축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